

삼천리1929. 09. 01.

新興 中國을 보고

李灌鎔

1, 「新興 中國」이란 무엇이나

삼천리에서 「新興 中國을 보고」라는 좀 막연한 문제를 내게 부탁하였다. 나는 新興 中國을 보고 온 사람으로서 그것으로부터 바른 인상을 다시 살리며 여기 기술함이 맞당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본 중국이 진정한 新興 中國인지 아닌지도 모르거니와 대관절 新興 中國이란 무엇을 가리쳐 말함인지나도 알고 심흔 것이다, 그것이 南京이나 北京이나 혹 上海나 廣東이나 列國誌 냄새나는 軍國이나 19세기식 商工資産家나 혹 봉건적 지주나 歐美의 최신 사상을 흡수한 知識分子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쏘벳트化 되고 있는 농민이나 계급의식이 확립되고 있는 노동자이나 혹 생활에 간신히 켜리여 다니는 乞人群이나 北京에서 본 中國이 上海의 中國과 다르고 南京의 中國이 廣東에서 본 中國과 달라서 현대 中國은 아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장차 무엇으로든지 되고 있는 혼돈의 구름—이라는 것보다 霖雨中的 濁流인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바이다,

新興 中國이 빗최었다고 할만한 인물로 말하드래도 爲先 北洋軍閥인 馮玉祥이겠는가, 資産(賣辦)계급이 산출한 新軍閥인 蔣介石이겠는가, 혹 봉건지주의 대변자인 胡漢民이나 新舊智識分子인 吳稚暉, 戴天仇, 蔡元培 등이겠는가, 오즉 蔣介石만은 新興 中國이 產出한 인물이라 하겠스니 즉 辛亥年 이후로 北洋軍閥이 割據相戰하든 中國을 쇄신하여 民族資産階級을 중심으로 한 新中國을 건설하라는 意義에 잇서서 蔣介石에게 新興 中國의 一片을 볼 수 잇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中國의 新興連動은 이것만으로 만족히 녀기지 안코 더욱 광범한 대중 요구의 만족을 목적함으로 新興 中國이 產出하였든 蔣介石은 新興 中國을 대표할 수 업게 되였다. 대중적 정치운동에 아직도 참여할 의식을 가진 王精衛, 陳公博, 甘乃光 등이나 노농운동의 前衛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잇다는 陳獨秀 등에는 아직도 新興 中國이 빗최고 잇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新興 中國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오즉 민족적 세력으로만 전개되고 잇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다만 의식의 형태로 준

재함으로 이러한 新興 中國은 蔣介石 독재 하에서 구경하기도 容易치 안커니와 우리 형편으로 구경한 것을 記述하기도 곤란하다!

결국 내가 본 中國은 쇠퇴되고 잇는 舊세력의 압도 하에 여러 가지 新세력이 필연적으로 釀造되고 잇는 것이었다. 南京에 건설된 新興 中國은 아직 대부분이 紙上 존재를 면치 못하였고 그것이나마 도저히 실현될 형세는 보이지 아녜스나 엇갯든 新興 氣分이 업는 것이 아니다. 아편, 마작, 昌妓의 금지가튼 것은 확실히 이 新興 氣分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잇다. 여자의 削髮과 白話文의 성행 가튼 것도 新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잇다. 그러나 이 氣分도 전체에 보급되었다고도 볼 수 업슴으로 「新中國」이란 말을 사용함은 시기상조라는 평을 맞지 안을 수 업다. 舊軍閥시대와 다른 것은 여러 군벌 중에 오즉 하나만이 압도적으로 강하야 중앙정부의 위신이 슬 가능정도가 높하진 것에 잇다 아니할 수 업섯다.(以下 次號 繼續)